

반말과 계층 구조

정대현 교수의 반말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우 환
(서울시립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정대현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반말의 비인문성: 철학자가 본 한국의 언어 연구”¹⁾에서 철학자들이 흔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인 반말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 조명을 가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논문은 그 새로운 시도만으로도 돋보일 만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런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그 주제에 관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진보적인 논제들을 옹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는 특기할 만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는 정대현 교수가 그의 저서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 이후 늘 견지해 온 한국어에 대한 철학적 관심의 또 다른 결실이기도 하다.²⁾

그렇지만 필자는 그 논문의 기본적 정신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그 논문의 구체적 이론 전개 of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필자는 나름대로 반말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 반성을 할 기회까지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논의와 반성의 결실을 여기에 제시하려 한다.

【Keywords】 ban-mal(non-honorrific expressions), hierarchical structure, relational theory, asymmetrical uses, objectivism

1) 정대현(2003). 그의 이 논문은 본래 국제언어인문학회의 2003년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필자의 본 논문은 본래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 논문에 대한 논평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 정대현(1985). 그 외에 정대현(1997) 또한 참조.

정대현 교수의 논문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논문의 상당 부분은 한국어의 반말에 대한 비판에 바쳐져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대현 교수의 논문에서의 핵심적 논변(특히 (나)절에서의)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물론 다른 부수적인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 (1)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반말 사용은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
-
- (3) 그러므로, 반말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논변의 대전제 (1)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동조한다. 정대현 교수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계급, 신분, 직업, 연령 등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인간들 사이에 실체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그리하여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일방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계층 구분의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로 (1)을 옹호하는 논의를 담고 있는 그의 논문의 (라)절에 대해서는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전제 (2)가 최소한 그의 논문에서 이해되고 옹호되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 못한다. 반말과 관련된 무언가가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대현 교수와 의견을 달리 한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의 비판적 검토를 위해 (나)절의 그의 논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다음 절에서 정대현 교수가 (2)를 옹호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받아들이는 반말 관계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설사 정대현 교수의 반말 관계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가 의도하는 방식의) (2)가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필자는 정대현 교수의 결론을 수정한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수정된 논변을 제시할 것이다.

2. 반말에 대한 객관론과 관계론

정대현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반말과 관련한 입장으로서는 객관론과 관계론을 구분한다. 그는 반말에 대한 객관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의 예로, 식사 권유 개념의 표현들을 들어 보자: (1) 진지 드시옵소서; (2) 진지 드시지요; (3) 진지 드십시오; (4) 식사 드시지요; (5) 식사 하십시오; (6) 밥 먹으시지요; (7) 밥 먹으십시오; (8) 밥 먹지요; (9) 밥 먹어요; (10) 밥 먹어; (11) 밥 먹어라; (12) 밥 처먹어라. 식사 권유 표현의 목록 중에서 어떤 것이 반말인가? (12)번인가 아니면 (10)번 이상인가?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관점은 반말이 객관적 표현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반말이 화자-청자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³⁾

즉 정대현 교수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말-예를 들어 “밥 먹어라”-이 반말인가에 대한 대답이 화자-청자 독립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반말에 대한 객관론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 화자-청자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반말에 대한 관계론이다. 정대현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반말에 대해 객관론을 (거의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서) 부정하고 관계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다.⁴⁾

우선 여기서부터 필자는 ‘반말’의 개념과 관련해 정대현 교수와 기본적으로 상이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필자가 가진 (아마도 보다 더 소박한) ‘반말’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정대현 교수가 ‘객관론’이라 부르는 종류의 것이다. 필자로서 당연시되는 입장인 객관론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반말은 높임말이 아닌 말(예사말과 낮춤말)이고, 즉 상대방을 높이는 화용론적 기능을 갖지 않는 대우법의 형식의 말이다.⁵⁾ 그리고 어떤 말들-예를 들어 “밥 먹

3) 정대현(2003), (나)절 서두.

4) 객관론을 부정하고 관계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의 논변이 매우 간략한 것으로 보아, 반말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시되는 것 같다.

5) 본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반말이 단지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낮추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어라”-은 그것들의 화자와 청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 통사론적, 어휘론적 특성들에 의해 반말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반말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는 분명치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화자와 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변동하지는 않는다.⁶⁾ 나이든 회장이 젊은 수위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해도 반말이고 젊은 수위가 나이 든 회장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해도 반말이다. 물론 화자와 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반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혹은 흔히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가 아닌가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든 반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필자가 보기에, 정대현 교수는 필자의 이런 소박하고 상식적인 ‘반말’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보다 복잡한 ‘반말’ 개념-관계론-을 채택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가 그 논변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다음이 그 전부이다.

그러나 반말 객관론의 관점은 지지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반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장이 청자가 되어 여러 사람들로 부터 식사 권유를 듣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왕회장, 회장, 사장, 전무로부터 들을 수도 있지만 그가 지휘하고 있는 과장, 계장, 주임, 주사, 운전사, 경비 등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그 부장이 화자가 되어 그 회사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식사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말의 객관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⁷⁾

서정수(1996)의 경우 한국어의 대우법을 크게 존대말과 비존대말로 나누고 비존대말을 다시 예사말과 낮춤말로 나누고 있다. 그 경우에 비존대말 전체가 반말인가? 아니면 예사말만이 반말인가? 한국어학자들간에는 한국어에 낮춤말이 있는가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김태영(1999)은 한국어에는 낮춤법이 없다고 본다. 즉 존대말과 예사말만이 있는 셈이다. 그 경우에는 물론 반말의 범위를 예사말로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필자는 대우법상 비존대말을 반말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 6) 즉 ‘반말’은 그 자체로 모호한(vague)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의 적용 범위가 화자-청자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7) 정대현(2003), 위 인용문에 이어서.

정대현 교수가 여기서 객관론의 반례라고 이야기한 것이 왜 정말 반례가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부장이 회장으로부터도 수위로부터도 식사 권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객관론의 반례가 되는가?

그렇다면 왜 정대현 교수는 반말에 대한 객관론이 잘못이라고 굳게 믿는가? 필자가 추정하기에, 그것은 아마도 정대현 교수가 반말 여부의 문제와 반말의 적절성 여부의 문제를 섞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이든 회장이 젊은 수위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비록 반말이기는 하지만, 청자인 젊은 수위는 “왜 반말이야?”하고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화자-청자 관계는 반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으로 젊은 수위가 나이 든 회장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할 경우 똑같이 반말이기는 하지만, 청자인 나이 든 회장으로부터 “왜 반말이야?”하는 반발을 유도할 것이다. 아마도 그 화자-청자 관계는 반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말의 적절성 여부**는 분명히 화자-청자의 관계에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반말 여부 자체가 화자-청자의 관계에 상대적이라는 것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결국 필자는 **반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론에 동의한다.⁸⁾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반말 여부**에 대한 관계론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론을 받아들여도, 반말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반말이야?”라는 항의를 둘러싼 언쟁은 반말이 적절한가의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언쟁은 반말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론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필자는 반말에 대한 관계론이 당연시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

8) 그러나 실제적이고 정당화된 계층 구조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반말 사용의 적절성이 화자-청자 관계에 의존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상식적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든 회장이 젊은 수위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반말 사용이라면 젊은 수위가 나이 든 회장에게 “밥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한 반말 사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후반에서 강조될 진보적 관점에서의 생각이다. 그러나 논문의 이 단계에서는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말 여부에 대해 객관론보다는 관계론을 선택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정대현 교수의 논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최소한 그는 반말에 대한 객관론을 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필자와 같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 필자는 그 뿐만 아니라 반말 여부에 대한 관계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보다 적극적인 논변을 펼치기로 하겠다. 그 논변은 일종의 귀류법적 형태를 지닌다. 즉 관계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정대현 교수 자신도 원하지 않을) 귀결이 따라나온다는 것을 보이겠다.

정대현 교수의 (반말 여부에 대한) 관계론이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귀결을 낳는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대현 교수의 관계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대현 교수는 그의 관계론을 다음의 서로 다른 두 판본으로 제시한다.

(나1) 화자 S가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했을 때 그 xi는 H에게 반말이다

<-> H는 S로부터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나2) 화자 S가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했을 때 그 xi는 H에게 반말이다

<-> H는 S로부터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

우선 필자는 정대현 교수가 제시한 관계론의 두 판본 중 주관적 판본인 (나1)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의 두 번째 판본인 (나2)를 그의 공식적 입장으로 간주하겠다. 어떤 말이 반말인지 여부가 대화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명백히 어렵기 때문이다.

정대현 교수는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의 관계론으로부터 반말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관계론을 전제할 경우 따라나오는 것은 반말 사용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말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전제들을 보자.

- (1)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2) 화자 S가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했을 때 그 xi는 H에게 반말이다 <-> H는 S로부터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
 (나3) H는 S로부터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 ->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 들에 대응하여 H와 S는 어떤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 속의 계층적 위계들 Ci의 어떤 다른 단계에 각기 속한다.

(여기서 (나3)에는 (1)과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굵은 글씨의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정대현 교수도 의도한 것이라 여겨진다.) (1)이 참이라면 (나3)의 후건은 참일 수 없고 따라서 그 전건((나2)의 우변이기도 한)도 참일 수 없으며, 따라서 (나2)의 좌변도 참일 수 없을 것이라는 다음의 귀결이 나온다.

- (결) 화자 S가 X 개념의 어떠한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하더라도, 그 xi는 H에게 반말이 아니다.

어떤 한국어 표현 xi가 반말이라는 것이 참인 경우가 없고, 따라서 어떤 한국어 표현도 반말이 아니라는 즉 한국어에 반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이다. (한국어에) 반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말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거나 반말이 언어적 폭력이라는 정대현 교수의 비판⁹⁾이 어떤 말들을 겨냥한 것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는 분명 정대현 교수 자신이 의도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의 관계론은 그런 의도되지 않은 귀결을 낳는다. 따라서 필자는 그의 반말 관계론이 포기되거나 혹은 최소한 실질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반말 사용은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가?

논의의 목적상, '반말' 개념에 대한 정대현 교수의 관계론적 이해에 대해 더

9) 정대현(2003), (나)절 후반부(발표문, pp.4-5).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기로 하고, 일단 그 이해가 옳다고 받아들여기로 하자. 그럴 경우, 반말 사용(혹은 반말 사용의 정당화)은 정말로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는가?¹⁰⁾ 그리고 그렇다고 할 경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일단 다음의 두 수준의 단어들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 대상언어 표현들 : ‘밥 먹어라’, ‘진지’ 등
- (ii) 메타언어 표현들 : ‘반말’, ‘높임말’ 등

물론 이 구분은 상대적이다. 그러나 우리 논의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구분이다. ‘반말’과 같은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메타언어적이다. 그것은 ‘밥 먹어라’와 같은 대상 언어적 표현(혹은 정대현 교수의 관계론에 따를 경우, 특정한 화자에 의해 특정한 청자에게 발송된 특정한 발화 개별자(token)로서의 ‘밥 먹어라’와 같은 표현)에 대해 참되게 귀속되는 표현이다.

우리가 일단 이 구분을 하게 되면, 정대현 교수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둘 중 어느 것인지가 필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 (I) ‘반말’이라는 표현(메타언어적 표현)의 사용은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
- (II) 반말들(‘반말’이라고 분류되는 대상언어적 표현들)의 사용은 계층 구조의

10) “반말 사용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을 필자는 “계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반말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혹은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말 사용이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대현 교수가 정대현(2003)의 (나)절에서 하는 많은 논의는 이런 의미에서 반말 사용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예를 들어 “반말 사용의 정당화는 한 개념의 표현들의 위계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발표문, p.4)라고 또한 “반말은 상하 관계의 위계 안에서 발생 하는 것이므로 대화는 어렵고 명령자로부터 피명령자에게 이르는 일방적 지시이기 쉽다”(발표문, pp.4-5)고 말하고 이 말들을 입증하려 한다.

존재를 전제한다.

정대현 교수가 의도하고 있는 주장은 (II)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야, 너 몇 학년이냐?’라고 묻는 것이 그를 “위계적 인간 계층 구조 안으로 납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¹⁾ 따라서 ‘야, 너 몇 학년이냐?’와 같이 (최소한 그 맥락에서) 반말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것 같다. 분명히 그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반말들을 사용하는 일이지 ‘반말’이란 말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대현 교수가 제시한 관계론적 ‘반말’ 이해에 입각해서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I)이다. 정대현 교수의 (나2)와 (나3)이 옳다면, 반말의 개념은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언어적 표현을 반말로 분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 ‘반말이다’라는 술어를 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화자와 청자가 각각 계층 구조의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말로 분류된 **대상언어적 표현들의 사용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반말의 개념을 갖지 않고 또한 ‘반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반말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몰리에르(Moliere)의 <서민 귀족(*Le Bourgeois Gentilhomme*)>의 주인공이 ‘산문’이란 말을 모르고서 평생 산문을 사용했던 것과 같다. 또 다른 유비로서, 누군가가 사투리와 표준어의 구분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위계를 전제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서, (그런 위계를 전제함으로써) 사투리로 분류된 말들(예를 들어 ‘그렇당케’) 혹은 표준어로 분류된 말들(예를 들어 ‘그래’)의 사용이 그런 위계를 전제한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런 위계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II)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변을 위해 다음

11) 정대현(2003), (다)절(발표문, p.6).

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정대현 교수가 든 엘리베이터 예에서 정대현 교수가 어린이에게 “야, 너 몇 학년이나?”라고 물었는데, 그 어린이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난 2학년인데, 너는 몇 살이니?”라고 말했다고 해 보자. 이 말은 분명히 어떤 기준에서건 (정대현 교수의 (나2)에 의해서도) 반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일반적 기준에서 상당히 무례한 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의 사용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 어린이의 그 반말은 연령상의 계층 구조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말이다. 정대현 교수는 “반말은 상하 관계의 위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¹²⁾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반말은 오히려 상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다. 이 말은 또한 “명령자로부터 피명령자에게 이르는 일방적 지시”라고 볼 수도 없다(물론 이 말이 다른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로서, (실체적이고 정당화된) 계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고히 믿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에 입각해 모든 사람-회장이건 수위이건-에게 똑같이 반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으로부터도 반말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해 보자. 그 사람의 반말 사용은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반말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로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트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 정대현 교수는 “말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를 전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말은 위계적 언어 사용인 것으로 보고, 그 결과로 말을 트는 것이 “화자-청자 간 반말 사용하기”라는 것에 대해 (최소한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었을 때에) 부정하고자 한다.¹³⁾ 그러나 반말이 위계 질서를 전제한다는 생각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화자-청자 간에 서로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를 지향하는 것은 화자-청자 간에 서로 높임말을

12) 정대현(2003), (나)절(발표문, p.4).

13) 정대현(2003), (다)절.

사용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를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무엇이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가?

결국 필자가 보기에,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반말의 사용 자체가 아니라, 높임말과 반말의 **비대칭적** 사용이다. 즉 상대방의 계층 단계에 근거해, 상대방으로부터는 높임말을 듣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반말을 사용하는 것-또는 그 역-이 바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높임말과 반말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대화의 평등한 참여자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일방성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 개성, 인격, 의견을 최소화하지 않는”¹⁴⁾다고 하는 정대현 교수의 비판이 정확히 적용될 만한 대상이다.

화자-청자가 서로에 대해 높임말을 사용할 경우,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하는 겸손의 표현일 수 있다. 화자-청자가 서로에 대해 반말을 사용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서로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태도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화자-청자 중에서 A는 계층 구조 내의 계층 x_i 에 속하고 B는 계층 구조 내의 계층 x_j 에 속하며 x_i 가 x_j 보다 그 계층 구조 내에서 더 상위의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A는 B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B는 A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거해 반말과 높임말을 **가려서 (비대칭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자. 그런 일련의 판단과 사용(이 총체)은 명백히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나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높이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임을 받을 만한 계층 구조 내의 위계적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14) 정대현(2003), (나)절(발표문, p.5).

이다.

이상의 고려에 입각해, 우리는 정대현 교수가 제시했던 형태의 논증을 수정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구성해 제시할 수 있다.

- (1)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반말과 높임말의 비대칭적 사용은 (실체적인, 정당화된) 계층 구조의 존재를 전제한다.
-
- (3) 그러므로, 반말과 높임말의 비대칭적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논증의 결론이 정대현 교수의 원래의 결론과 가지는 중요한 차이는, 이 경우에 특정한 반말의 사용은 고립적인 방식으로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老)신사가 어린아이에게 “너 몇학년이냐?”라고 반말을 사용했을 때에 그 반말 사용은 고립적인 방식으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될 수 없다.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여부는 그 노신사의 언어 사용을 보다 전체론적(holistic)으로 보았을 때에 평가될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그 어린이가 “난 2학년인데, 너는 몇 살이니?”라고 반문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의 언어 사용의 총체가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비록 자신은 반말을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는 높임말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의 언어 사용의 총체가 주어져 있는가에 의존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의 높임말과 반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판한 것처럼 비대칭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의 높임말과 반말의 통상적인 사용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여 따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말의 어떠한 사용도 모두 필연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친소 관계에 따라 매우 가까운 사람끼리는 반말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는 높임말을 쓰는 식으로만 높임말과 반말이 사용되면서 그것들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완전히 대칭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계층 구조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¹⁵⁾

아무튼 우리는 한국어에서의 반말의 통상적인 사용과 관련해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필자는 정대현 교수와 의견의 일치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용문헌

- 김태영.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대구대 출판부, 1999.
서정수.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 출판부, 1996.
정대현. 『한국어와 철학적분석』, 이화여대 출판부, 1985.
정대현. 『맞음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7.
정대현. “반말의 비인문성: 철학자가 본 한국의 언어연구”, 『인문언어』(본 학술지), 2003.

15) 흔히 서양 언어에도 높임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지만, 한국어의 통상적 사용과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여겨진다. 최소한 현대 서양 언어들에서 높임말과 비높임말(반말)이 화자-청자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찾기 힘들다.

[Abstract]

**Ban-mal and Hierarchical Structures :
Professor Chung's Theory Critically Examined**

Hwan Sunwoo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aihyun Chung has recently presented an intriguing view of Ban-mal (non-honorific expressions) in Korean. He criticizes uses of Ban-mal, on the grounds that they presuppose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structures in human beings. Professor Chung also advocates “a relational theory of Ban-mal” according to which ascriptions of ‘n-mal’ should be relativized to the speaker-hearer relationship. He employs this view in showing that uses of Ban-mal indeed presuppose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structures in human beings

I claim that Professor Chung has not shown the credibility of his relational theory of Ban-mal, and that this very view leads to an unintended and undesirable consequence. Moreover, I show that, even if we assume that this view is true for the sake of an argument, he is not able to show that uses of Ban-mal indeed presuppose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structures. All he can show is rather that uses of ‘Ban-mal’(a meta-linguistic expression) presuppose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structures. Finally, I conclude that what really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structures is the asymmetrical uses of Ban-mal and honorific expressions.